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999 ← 1 경북대로
Gyeongbuk-daero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  주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www.juso.go.kr
지번주소,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눈에!
-  스마트폰에서 찾아보세요 '주소찾아' 앱(App)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손에!
*주소찾아 앱(App)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N서울스마트마켓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번에!

7.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인천시립국단 -세미유지갑 파우스트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시립연극단 제163회 정기 공연-트랜스십이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7.1~7.7)	2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경주시립국단 -꽃마차는 달려간다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3	4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전주시립국단 -시집가는 날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5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국립국단 -레슬링 시즌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6 재능기부 콘서트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까치울
7 제9회 영덕 로하스 해변 전국 아라톤대회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부산시립국단 -귀족수업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8	9	10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대구시립국단 -청문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11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경기도립국단 -영상음악극 외톨이들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퍼포먼스 '플라잉'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	12 제7회 전국학생사진 공모전 및 제22회 구미전국사진 공모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7.12~7.14)	13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순천시립국단- 늦은 행복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오정해 소리이야기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2013 댄스뮤지컬-사랑하면 춤을 춰라! Sachoom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13~7.14)
14 [제4회 경주 대한민국 국공립 국단 페스티벌]포항시립국단 -세자매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15	16	17	18	19 제2회 칠곡 세계 인형음악극 축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7.19~7.23)	20
21	22	23 한국 예원문화협회 회원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7.23~7.28)	24	25	26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한 여름 밤의 불빛이야기 포항시 항신강체육공원 등 (7.26~8.4) 제11회 김천 국제가족 연극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일원 (7.26~8.6)	27 제4회 봉양자두벌리축제 의성군 일산초등학교(구)(7.27~7.28) 2013 봉화온어축제-신나는 여름여행, 가족과 함께 봉화로! 문경시 문경새재 일원(7.27~8.3) 2013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 -여름이 전해주는 또 다른 자연 과의 만남 울진군 백암온천 등(7.27~8.4)
28	29	30 강으로 흐르는 사람과 생명의 노래 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7.30~8.4)	31 연극 '마이맘'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까치울			

8.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013 영주강변페스티벌 영주시 가흥교 일원(8.1~8.4)	2 2013 예천 삼강주막 막걸리축제 -나그네가 반기는 뚝한사발 예천군 삼강주막(8.2~8.4)	3
4	5	6 2013 제4회 장애인미술가의 '희망축제' 한마당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8.6~8.11)	7 2013 칠곡 국제 재즈 페스티벌 포항시 칠포해수욕장(8.7~8.11)	8 콘서트 '자전거 타고 동물원에 여행가자'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	9	10
11	12	13 KM 구미 포항 교류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8.13~8.18) 제4회 조진현 개인전 '소통'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8.13~8.18)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성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4 경주 천년의 사랑 불빛축제 경주조선훈천호빌(오른편)
25	26	27	28 국악 아리랑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	29	30	31

9.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김천예술고등학교 콘서트 2013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마당극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	6 국악 별고을 신영 콘서트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 2013 커피향소-구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	9	10	11	12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참 좋은 음악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3 2013 경주세계페리축제 경주예술의 전당(8.13~9.1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김차경 음반 기념콘서트 (시 노래 콘서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6 이경미 피아노 독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다원예술 '춘향난봉가'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	27 제4회 슬롱고스 펠렛 정기연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3 두비두비 음악회 '로두끼기 인형'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17회 봉화송이축제 봉화군체육공원(9.27~9.30)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2013 인동하마을(9.27~10.6)	28 제1회 프라이드 색소폰 페스티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동초제 심청가 완창 공연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9	30 제22회 구미세가 협회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9.30~10.3)					

CONTENTS

PRIDE GYEONGBUK

SUMMER. VOL.394

Special Theme 04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고(SA)등급!
06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범국가적 글로벌 문화제전으로

알찬살림 부자경북 10 경북도, 100년 기업 역사 쓸 향토뿌리기업 인증
12 경북도, 2013년 문화제 국비예산 전국 최다 확보
13 경북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 효과 나타나

웃음가득 행복경북 14 영남유림 화합의 상징! 호계서원 복설 추진한다!
16 1800만 생활체육인 한마당 축제,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성황!

밝은미래 희망경북 18 Why? 독도!
20 경북에 세계 최초 종합산림치유단지 들어선다!
21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인기!

도민사랑 일류경북 22 대구·경북관광 WIN-WIN 전략
23 국내 최초 뚝은 감 우리 품종 개발

나드리, 이리오이소~ 24 경북 여름여행 떠나요!
28 가 볼만한 곳 - 국내 최고(最古) 막걸리 양조장, 영양탁주

따끈따끈 신간 30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육성사업 참여농가별 유기재배 매뉴얼(1)
경북의 훈 지금 여기 되살아나다

프라이드 News+ 32 찰칵! 경북의 오늘
36 도정단신
40 도의회 소식
48 경북 알리미
51 건강장식
52 지금 시·군에서는



표지 이야기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냇가'에는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이 깎고 다듬은
흰 바위와 더불어 정엄한 비경이
펼쳐지고 있다.

2012 경북관광사진공모전
_쇼연화 '백석탄(정송군 안덕면)',(입선)



SUMMER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이상욱 · 발행일 | 2013년 7월 3일
- 문의처 | 경상북도 대변인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대변인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도민과의 약속 가장 잘 지키는 지자체” 공인

일자리 22만개, 투자유치 20조 등 일자리조직 높은 점수

경상북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매니페스토평가단 공동 주관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경북은 공약이행도 전국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S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02일

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 자료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등급(SA, A, B, C, D)으로 표출했다.



경상북도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마을세계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두드러진 성과를 얻고 있다.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이 양국의 협조 아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지방의원 등 각종 선거직의 공약과 관련하여 공약추진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추진상황 감시·평가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교수, 전문가 34명의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 목표달성 분야(100점),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주민 소통 분야(100점), 웹 소통 분야(100점), 공약일치도(100점)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경북도는 각 분야별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주민소통 분야와 웹 소통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에서는 도민과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위해 분기별 자체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해 오고 있다.

현재 9개 분야, 26개 시책, 119개의 공약사항 중 공약 완료도 47.9%(57개), 정상추진 55.1%(62개)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일자리 22만개, 투자유치 20조 공약과 전국 최초로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투톱체제로 일자리조직을 과감히 개편하는 한편, 민생경제 부문, 강산해 프로젝트·첨단신산업 분야 등 미래먹거리 부문, 그리고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새마을 세계화 등 국제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3년 연속 최우수 수상은 경북도민의 노력과 땀으로 이룩한 성과”라고 밝히면서 “도민과의 신성한 약속을 더욱 잘 지키고 경북 미래발전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8월 31일부터 9월 22일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8월초까지 완벽 준비, 한국-터키 문화적 자존 드높인다!

화외교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행사 열리나?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은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세계문화가 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특별행사 등 10개 분야에서 30여 개의 특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의 진수와 최첨단 IT를 결합한 '한국문화관'을 비롯 '한국대표작가 사진전', '한국문화재특별전', '전통 패션쇼' 등을 펼치며 우리 고유의 전통과 현재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보여주게 된다.

한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한국영화축제, K-POP 공연, 비보이 퓨전공연, 태권도시범공연 등과 지구촌 문화 화합을 위한 실크로드 바자르(30여 개국 참가), 세계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계 거물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학계 등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D-100일 기념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가 5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도지사,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구삼열 전 국가브랜드위원장, 김주영·이문열 소설가, 손지애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각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진행상황 점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감 없는 대담이 진행됐다. 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아낌없는 조언이 쏟아졌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방부(해군본부) 등 유수의 기관들이 참여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한국문화의 정수를 알리는 글로벌 문화축제로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 기관들이 발 벗고 나서면서 전 세계에 걸친 문



이집시안 바자르 앞 광장 - 한국문화관

- 일 시 2013. 8. 31 ~ 9. 22(23일간)
- 장 소 한국문화관 내(이stanbul 이집시안 바자르 앞 광장) 2,088.35㎡
- 내 용
 -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특한 매력을 세계인에게 널리 홍보
 - 전시관 외형은 한국의 전통건축물로 디자인하여, 이stanbul 속에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게 함



파티구청 공연장 - 세계민속공연축제

- 일 시 이stanbul엑스포 기간(2013. 8. 31 ~ 9. 22)
- 장 소 파티구청 공연장 야외무대(무대크기 16m x 12m)
- 내 용 한국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공연(춤)을 중심으로 대중적이며 재미있는 작품으로 구성
- 행사 프로그램 세계민속공연축제



민속공연축제(20개국) 등도 준비돼 있다. 포스코,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하는 한국기업홍보관,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관도 마련된다.

누가 참여하나?

한국 문화계 거장들 이stanbul로 출격!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위해 한국 문화계의 거장들이 이stanbul에 총출동한다.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총감독은 서울올림픽 개·폐막식 제작단장과 세종문화회관 초대 이사장을 지낸 표재순 씨다. 한-터 양국이 공동으로 펼치는 개막축하공연의 안무는 최정임 전 정동극장장이 맡았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상설공연 중인 '플라잉 (FLYing)'의 최철기 총감독은 이 공연을 가지고 이stanbul을 찾는다. '플라잉'은 2011년 경주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지자체 공연으로는 최초로 누적관람객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싱가포르 수출공연도 대성황을 이뤘다. 이제 유럽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점칠 차례다. 엑스포 기간 중 1일 1회 공연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대표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씨는 '한-터 전통패션쇼'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인다. 양국 예술대학교가 함께 펼치는 '한-터 예술 합동교류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7인의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되며, 책임 큐레이터로 김선정 씨가 선정됐다.

한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영화축제', 'K-POP' 공연 등도 마련돼 한국의 대표 감독과 배우, 인기가수들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터 문학심포지엄'에 소설가 이문열씨, '한국대표작가 사진전'에 김중만, 구본창 씨 등이 참여한다. 한국화 대가 박대성 화백, 한국대표 건축가 승효상 씨 등 문화계 거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준비도 내실을 다지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터키에서 선보일 전시, 공연물 제작이 한창이다. 올해 1월부터는 터키 현장에 한국측 인력이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stanbul 현지 양국 공동사무국에 5명이 파견돼 양국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행사 준비가 착착 이뤄지고 있다.

7월에는 터키 내 한류 팬들로 운영요원·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관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의 홍보마케팅에 집중하게 된다.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한 '코리아 실�크로드 2차 탐험대'는 7월 중순 중국에서 출발해 7개국을 경유하며 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개막식날 이stanbul에 입성할 예정이다.

8월초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후 리허설을 거쳐 8월 31일, 한-터 양국민의 문화적 자존을 드높이고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을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 간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해외청년 홍보단 가동!

42개국 유학생 600명 선발... 자국에 SNS로 문화엑스포 홍보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해외 청년 홍보단'이 5월 26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발족식을 가지고 활동에 들어갔다.

해외 청년 홍보단은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터

키, 미국 등 42개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600여 명의 대학생들로 구성,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엑스포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를 활용해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자국에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30년 이상 지역경제 버팀목, 향토뿌리기업 27개소 발굴

“지역경제 100년 이야기로 되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30년 이상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한 업종별 장수기업 27개소를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인증하고, 전통산업의 향수가 담긴 근대산업건축물 8개소를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했다.

지난 5월 30일 현존 국내 유일의 성냥공장인 의성군 의성읍 소재 ‘성광성냥’ 공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이왕식·나현아 도의원,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현판식’을 개최하고, ‘경상북도 산업유산과 향토뿌리기업’ 스토리텔링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향토기업 100년 역사의 뜻 깊은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토뿌리기업 생상품 홍보부스를 설치, 영양탁주(현존 전국 최고(最古) 양조장 생산), 경주 황남빵, 안동 자반 간고등어, 안동 대흥엿방의 물엿, 상주 새싹식품의 콩나물 등 시식회를 마련하였으며, 도립국악단의 풍물가락과 가야금 연주가 곁들여진 오감만족 행사

진행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었다.

현판식에 앞서 이날 오전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대표 22명이 한 자리에 모여 ‘향토뿌리기업협의회’를 발족, 지역 근대산업의 뿌리인 향토기업의 상생화합과 100년 지속발전 방안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경북도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며 전통산업을 영위해 온 장수기업의 사기양양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시·군의 협조를 받아 30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400여개를 대상으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근대 산업건축물의 보존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대 산업유산 조사 작업도 병행 실시하고, 100여개로 압축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대상에 대해 개별 현장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성광성냥을 포함한 총 31개소(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 중복지정 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중 가장 오래된 업체는 1926년에 설립되어 88년 동안 전통방식 탁주제조 공정을 지켜온 영양탁주합동(권시목)이며, 최고(最古) 가계승계 기업은 경주의 (주)노당기와(정문길)와 상주 장수직물(남수원)이 4대째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구미 오운여상은 구미 국가1공단 제1호기업인 코오롱이 1979년에 설립한 실업고, 조국근대화의 역군 여성근로자의 주경야독 현장으로서 2000년 폐교 이후 현재까지 학교건물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살아있는 체험교육장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산업유산이다.

또 상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에 설립(추정)된 주조회사로 1985년 폐업 이후 현재까지 회사건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우뚝 솟아오른 공장굴뚝이 과거 주조산업의 명성을 대변해주는 산업유산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자산과 다양한 콘텐츠를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에 접목시켜 지역경제성장은 물론이고 향토기업 100년의 역사를 써 나갈 것”을 당부하고, 지역 경제성장의 역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향토뿌리기업인의 노고를 치하했다.

경상북도는 향토뿌리기업과 더불어 산업사적 가치가 높은 산업유산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토뿌리기업 현황]

향토뿌리기업 : 27개소(8개 업종)

- 양조장(3): 영양탁주합동(’26), 예천 풍양합동양조장(’64), 안동탁주합동(’71)
- 정미소(2): 상주 목상정미소(’56), 김천 송천정미소(’62)
- 철공소(3): 안동 대한주물공업(주)(’53), 상주철공소(’55), 안동 영동농기계(’62)
- 제재소(3): 영주 대성임업(주)(’71), 안동 경일산업사(’73), 영주 진흥제재소(’73)
- 식 품(7): 경주 황남빵(’56), 성주 대양제면(’58), 상주곡자(’66), 안동 대흥엿방(’69), 울릉 제일두부(’73), 삼성수산 안동간고등어(’78), 상주 새싹식품(’84)
- 섬 유(3): 영주 삼화직물(’74), 경산 (주)미광(’77), 상주 장수직물(’81)
- 제 조(5): 경주 (주)노당기와(’40), 고령기와(주)(’53), 의성 성광성냥(’54), 김천합동연탄(’61), 예천 동성연탄(’77)
- 기 타(1): 의성 경신종묘(주)(’48)

[경상북도 산업유산 현황]

경상북도 산업유산 : 8개소(향토뿌리기업과 중복 4개소)

- 구미 오운여상(’79~’00) : 구미 국가1공단 제1호기업인 코오롱이 설립한 부설 실업고
- 영주 풍국정미소(’66) : 건립 당시 목조건축양식의 정미소 원형 보존
- 상주주조주식회사(’57) : 상주지역 주조산업사적 가치가 녹아있는 건물
※ 상주주조주식회사(’28~’85)
- 상주 잠령탑(’30) : 누에의 영혼을 달래고 매년 5월 풍잠제를 지내는 탑
- ※ 중복 4개소 : 영양탁주합동(’26), 경주 (주)노당기와(’40), 의성 성광성냥(’54), 상주 목상정미소(’56)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499억, 추경 100억 추가 확보 쾌거!

경주 역사문화도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룡사 복원' 탄력 기대



경상북도는 201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499억원(전국 20.6%)을 확보, 지난해 400억원에 이어 전국 최다 국비에산을 확보했다.

최근 도는 문화재청 국고보조(문화재 정비) 추경에서 경주 역사문화도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룡사 복원에 국비 총 27억원을 포함하여 국비에산 총 10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된 황룡사 복원 사업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경북도는 올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1,120억원(국비 및 지방비)을 지원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866억원, 문화재 사전예방 관리사업(재난방재시스템 및 문화재 돌봄사업 등)에 65억원,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홍보 등을 위하여 104억원,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보호육성 등 9억원, 문경사지장·자수장 전수교육관을 건립에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재 보존 현상변경처리기준 마련을 위해 27억원을 투입,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와 주변 경관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정부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황룡사 복원사업은 기본계획(타당성검토 등) 수립과 기초연구를 지난해까지 마무리했으며, 담장 및 중문 등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설계 및 모형제작(1/10 제작 중)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황룡사 연구센터(총 150억원, 올해 54억원/지상2층 한옥지붕)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거쳐 연구센터 건물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복원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어려움에도
경북 농식품 높은 수출
성장세 유지

“경북 농식품,
세계인의 입맛을 유혹한다!”



경상북도는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수출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수출 확대 시책에 힘입어 올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6,653만5천\$)보다 10.9% 증가한 7,377만4천\$를 기록했다.

이는 신선농산물, 가공류, 수산물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전국 농식품 수출 증가율 0.4%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분류별 수출 동향을 보면 신선농산물은 팥이버섯(30%), 새송이버섯(60%) 등의 버섯류(39%)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권을 포함하여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공식품으로는 과일·채소 혼합주스, 식혜, 물 등 음료류의 수출이 대폭 증가해 23%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산물은 연화약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치(189%), 붉은대게살(8%) 등의 수출실적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경북도가 연화 약세에 따른 對일본 농식품 수출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25억원)을 발 빠르게 지원하고, 기업이 환차손을 단가 상승 등으로 일부 만회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개척 추진, 수출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기반확충을 위한 경쟁력 제고(62억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86억원)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내 최고의 농식품 수출 기업인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현장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 기업이 애로를 해소하고자 '경북 농식품 수출 기업인 원탁회의'를 구성, 향후 경북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자문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2일 제1차 원탁회의를 안동시 풍산읍 소재 OKF(주)에서 개최,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R&D 지원 방안, 시장개척 지원 등 기업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최용 농수산국장은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연화약세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 농식품이 높은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시장 개척, 수출기반 확충 등 체계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올해 수출 목표 2억 5천만불 목표 달성을 위해 고부가 농식품 수출유망업체 육성 및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00여 년 이어지던 영남유림 및 문중간 '병호시비' 해결

안동 호계서원 복설 추진 협약식 개최



김관용 도지사가 400여 년 이어지던 영남유림의 큰 쟁점이었던 '병호시비(屏虎是非)'를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병호시비'란 퇴계 이황을 모신 호계서원(※1573년 여강서원으로 창건, 1676년 숙종 때 사액을 받으면서 개칭)에 1620년 퇴계 선생의 수제자인 학봉 김성일(1538~1593)과 서애 류성룡(1542~1607)을 배향하는 과정에서 위차(서열) 문제로 발단이 되어 서애 류성룡의 위패를 호계서원에서 병산서원으로 옮긴 후 400여 년간 계속된 영남유림 및 문중간 갈등으로, 병산서원의 '병'과 호계서원에서 '호'를 따 '병호시비'로 불린다.

안동 호계서원복설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5월 15일 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도내 유림단체 대표(퇴계·서애·학봉·대산 종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호계서원 복설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 동안 호계서원 이건 및 복설 등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대립을 보여 왔으나 최근 호계서원복설추진위원회와 영남유교문화진흥원장(원장 노진환), 경상북도지사, 안동시장 협의를 거쳐 호계서원 복설추진을 협약 및 퇴계의 왼쪽에는 서애, 오른쪽에는 학봉과 대산 이상정의 위패를 함께 모시는 것으로 문중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날 열린 호계서원 복설 추진 협약식에서는 노진환 유교문화진흥원장의 취지 및 경과설명, 김관용 도지사와 이석희 추진위원장의 협약문 날인 및 봉정 순으로 진행됐다.

복설 협약문은 이석희 추진위원장과 문중(퇴계·서애·학봉·대산) 종손간 안동 민속단지 내에 호계서원 이건 및 복설 추진, 대산 이상정(1711~1781) 선생을 호계서원에 추향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강당 이건과 사당 등 복설에 따른 경상북도의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상북도지사, 안동시장, 이석희 추진위원장, 네 문중 종손, 노진환 원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안동 호계서원 이건 및 복설사업은 대원군 서원철폐 때 훼손된 후 1878년 강당만 건축되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현재의 임하면으로 이건 되었으며, 습기로 인한 훼손 등으로 총사업비 4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안동야외민속박물관 부지(성곡동) 일원으로 강당 및 주사 이건을 추진 중으로 향후 사당 등의 복설은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고증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영남유림화합의 상징인 호계서원을 복설하는 것은 큰 의미"라며, "2014년 안동 신도청 시대, 경북도 개도 700주년을 앞두고 영남유림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대통합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북이 가진 생활체육의 저력을 마음껏 보여 줬다!

국내는 물론 4개국 해외선수단까지 2만여 명 참가



경상북도 안동에서 펼쳐진 1800만 생활체육인들의 한마당 축제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용 도지사,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6개 시도의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막한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17개 시·도 선수단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의 4개국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개회식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은 지역과 세대, 계층을 하나로 모으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소통·화합의 축전"임을 강조하고, "대축전을 국민통합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5월 23일 게이트볼을 시작으로 17개의 일반종목과 1개의 장애인종목이 첫 경기를 시작, 총 54개 종목 중 배드민턴, 육상, 야구, 줄다리기 등 24개 종목이 안동시에서, 라켓볼 등 30개 종목은 포항시 등 15개 시·군 경기장에서 빈틈없이 진행됐다.

또 이번 대축전은 지난해까지 별도로 개최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포함되어 기간이 3일에서 4일로 늘어났으며,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대축전으로 거듭났다는 평가이다.

특히 생활체육대축전의 한·일 교류전을 위해 일본 최대의 생활체육축전인 '일본 스포츠마스터즈대회(9월)'를 유치한 키타큐슈시에서 190명이 지난 5월 22일 입국하여, 민간스포츠 외교를 펼치고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안동 등 경북북부의 맛과 멋, 혼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번 대축전의 참가인원은 총 19,799명으로 남자가 13,275명(67%), 여자가 6,524명(33%)이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18,156명(92%), 청소년 1,627명(8%), 또 외국인 16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인 등록선수도 880명이 참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598명(23%)으로 가장 많고 10대 이하가 1,859명이나 되며, 80대 이상 어르신도 246명이 되는 등 계층, 세대, 연령을 초월한 진정한 화합과 교류의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참가선수단의 고백체험과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문화유산체험, '경북의 혼, 맛, 힘' 관광테마열차 힐링투어, 고백음악회, 안동예술제 관람, 전국 생활체육관련 교수와 학자 300여 명이 참가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백뮤지컬인 '민족의 여인, 락', '퇴계여가' 공연 등 경북도의 높은 생활체육과 문화 수준을 알리고 앞서가는 경북의 위상을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찾아가는 독도 홍보로 ‘독도사랑’ 확산한다!

릴레이 독도사진 전시회 개최 및 독도깃발 국민들에게 선보여

경상북도는 (재)안용복재단과 공동으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가 개최되는 안동시민운동장 및 안동탈춤공연장에 독도 홍보부스를 설치, ‘독도자료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연표 및 사료로 보는 독도자료, 독도의 사계를 담은 영상물 방영 및 원로 사진작가 김재도씨가 지난 10여 년간 독도를 드나들며 촬영한 사진을 직접 설명하고, 김철환 작가(울릉군청)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사진 40점도 함께 전시, 다양하고 신비스러운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경북도민체전 기간 중 김천종합운동장 특별전시관에서도 ‘독도 사진전’을 열었으며, 5월 14일 대구한의대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대구대, 영남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및 동국대 경주캠퍼스 축제장을 찾아다니며 ‘찾아가는 독도사진 전시회’를 개최, 젊은이들과 소통 공감에 나섰다.



독도주민 김성도씨 부부, ‘독도사랑카페’ 신장개업!

5월 21일부터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기념품’ 판매 개시

독도 주민인 김성도씨 부부가 독도의 수산물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독도사랑카페’를 개업하고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들어갔다.

이들 부부는 독도 선착장에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독도 방문을 기념하는 티셔츠,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독도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독도해설사의 역할도 맡게 된다.

탐방객들은 독도 주민과의 대화와 기념품을 통해 소중한 독도 방문의 추억과 독도와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가족이나 동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독도평화대상에 ‘독도사랑회’

독도를 문화예술 섬으로 가꾸어 세계인의 가슴에...

김관용 도지사는 4월 25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된 ‘제1회 독도평화대상 시상식’에 참석, “독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며, “아름다운 섬 독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꾸어 세계인들의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회 독도평화대상에는 2002년부터 ‘독도학당’을 개설하여 다문화가정, 군부대 등을 방문교육하고, 전국 순회 독도전시회 등을 개최한 ‘독도사랑회(대표 김종성)’가 선정되었으며, 2009년 전국 1만 3천여 회원의 모금으로 독도 동도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가로등을 설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대한봉(서도)상’을, 44년간 일본 내 독도 관련 고문서와 고지도 등 자료를 발굴·연구하여 현재 독도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우산봉(동도)상’을 수상했다.

‘독도평화대상’은 이병석 국회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독도평화재단’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있다.

제3기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독도를 외국인에게 홍보한다는 사실이 뿌듯해요!

경상북도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4월 13일 도청 강당에서 전국 초·중·고·대학생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청소년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관용 도지사와 함께 ‘글로벌 독도홍보대사’로서의 비전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며 다짐을 새로이 하고, 자신의 꿈을 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경북도는 최근 일본 정부가 국제적 활동을 통해 동해와 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가 해외 웹사이트와 교과서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반크와 공동으로 ‘글로벌 독도홍보대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정보에 대한 오류 시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두대간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소백산 옥녀봉 자락에서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기공식

경상북도에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체험은 물론 연구·교육·체류시설 등을 갖춘 종합산림치유단지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5월 23일 주낙영 행정부지사, 신원섭 산림청장, 장윤석·이한성 국회의원, 김주영 영주시장, 이현준 예천군수와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현지에서 개최했다.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대구·경북권 내륙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영주시 봉현면과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일대 2,889ha에 총사업비 1,598억원(전액국비)을 투자, 2015년 개원을 목표로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 설악산, 소백산, 지리산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생태축일 뿐만 아니라 옛 영토인 드넓은 만주벌판으로 뻗어가는 한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산줄기이다. 이러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과 산업화에 이바지하는 출발이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이다.

따라서 숲 체험, 연구개발, 교육 등을 기능적·물리적으로 통합, 기초연구에서 응용산업화까지 연계하는 종합산림치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치유단지 내 주요 시설로는 산림치유 연구시설, 숙박시설, 체험시설, 지원시설이 있다. 치유연구동, 연구포지, 연구 숲 등의 연구시설, 장단기 치유마을, 휴양림을 리모델링한 명상센터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며, 체험시설은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산약초원과 치유정원을, 지원시설로는 관리센터, 휴게소, 안내센터, 상업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 산림치유(Forest Healing)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경북도,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농번기 일손 덜어요!

농번기 일손 더는 실질적 도움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경상북도의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이 일손이 바쁜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증가,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영농행태 등의 변화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취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의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일정 규모(30농가) 이상 마을,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4~10월 농번기 공동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개소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부녀회원의 순번제 근무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청송, 칠곡군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해온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매년 확대 실시하여 2012년까지 총 38개소에 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포항, 상주 등에 10개소를 추가했다.

활용실적을 보면 2012년 기준 개소당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30여 명으로 연간 2,300명(전체누적 56,680명)이 이용했으며, 운영 기간도 연간 80~120일로 농번기 기간에 집중되었다.

그동안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으로 바쁜 농번기에 마을주민들이 협력하여 공동 취사하고, 함께 식사함으로써 부족한 일손을 덜어준 것은 물론 농업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간 유대강화를 돕는 등 미풍양속을 계승해 나가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공동취사를 통한 한식 조리법 전수 기회를 주고, 대부분의 취사장소가 마을회관(경로당)으로 이곳을 찾는 어른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등 경로효친사상 실천과 이웃 소통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경상북도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실천과제에 포함될 만큼 관심 있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농촌지역의 일손 부담 경감,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촌 마을의 정주 체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 경북공동 관광마케팅사업

대구 근교권 투어 본격 운영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관광마케팅사업인 대구근교권 투어를 본격 운영한다.

대구 근교권 투어는 문경, 영주, 안동, 경주, 포항, 고령, 성주, 청송 등 도내 12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투어프로그램은 10개의 기본코스 및 1개의 산업테마코스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축제시즌 등에는 축제, 행사성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코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투어 참가자에게 근교권 투어 홍보 리플릿 및 근교권 투어를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배포하고있다.

투어예약은 대구관광협회 홈페이지(www.daeguttravel.or.kr)를 통한 인터넷 · 전화 예약,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지역관광안내소를 통한 현장예약 모두 가능하다.

예약 및 접수는 대구광역시관광협회(Tel : 053-746-6407)로 하면 되며 이용요금은 일반 25,000원 / 중·고등 22,000원 / 초등·경로 20,000원 /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20,000원 / 유아 10,000원이다.(포함사항 : 교통비, 관광지입장료, 가이드비 / 불포함사항 : 식대 및 체험비, 기존 일정 외 추가관광지 입장료)

《투어프로그램 현황》

구 분	주 요 방 문 지
기본코스(문경)	고모산성, 문경새재(드라마세트장), 석탄박물관
기본코스(안동)	도산서원, 하회마을, 안동한지공장
기본코스(경주)	대릉원, 첨성대, 불국사, 신라역사과학관
기본코스(포항, 영덕)	호미곶(등대박물관, 새천년기념관), 영덕해맞이공원(풍력발전소), 보경사, 경상북도수목원
기본코스(포항)	호미곶(등대박물관, 새천년기념관), 양동민속마을
기본코스(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주산지, 송소고택
기본코스(고령)	지산동고분군(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기본코스(성주, 김천, 구미)	한개마을, 세종대왕자태실, 직지사, 박정희대통령 생가
기본코스(청도)	운문사, 운강고택, 청도읍성, 와인터널
기본코스(영주)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산업코스(포항)	포스코현장견학, 포스코역사관, 양동민속마을, 옥산서원

우리나라 뚝은 감 육성에 새로운 이정표!

올해 통상실시권 실시하여 2015년부터 농가에 보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은 설립 이래 18년 만에 국내 최초로 뚝은 감 신품종으로 ‘상감동시’, ‘수홍’, ‘미려’ 3개 품종을 육성해 품종보호권에 등록시켜 감 재배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게 되었다.

‘상감동시’, ‘수홍’, ‘미려’ 3개 신품종은 상주감시험장에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수집한 지방 재래종 중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생육특성과 과실특성을 검정한 후 선발한 품종으로 2009년도에 품종 보호출원하여 품종 심사를 거친 후 품종보호 결정된 것이다.

이들 세 품종의 특징은 ‘상감동시’는 과실의 무게가 380g 정도의 대과로 연시와 반건시용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수홍’은 과실의 무게가 290g 정도로 크고 과형이 원형으로 꺾임 제조에 편리하다. ‘미려’의 경우 과실의 무게가 100g정도의 소과이나 과실이 실꾸리 모양으로 총생하며 과피가 아주 매끈하고 광택이 있어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다.

‘상감동시’의 경우 단위결과성이 약하며 생리적 낙과가 많은 편이고, 꺾임이 크고 단단하여 꺾임 제조시 꺾임 빠짐이 거의 없으나 대과이므로 반건시용 또는 연시용으로 적합하다.

‘수홍’의 경우는 과실의 숙기는 10월 상중순으로 빠른 편이고 단위결과성이 높으며 종자(씨)가 0~3개 정도이고, 과심 크기가 작아 꺾임용으로 품질이 우수하나, 꺾임의 색택이 상감동시보다 다소 검은 빛을 띠며 측지와 결과모지 수가 적어 유목기에 착과량이 많으면 수세가 많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려’는 과실의 결실성이 좋아 풍산성이며 짧은 결과모지가 많을수록 과실이 많이 달리고 총생하여 관상가치가 높으며, 100g 정도의 소과이나 착색 후 연화가 느려 오랫동안 관상이 가능하고 종자가 1~2개로 적고 당도가 높아 홍시용으로도 식미가 좋을뿐만 아니라 정원수용으로 재배 시 수형관리와 적정 착과량 유지를 위해 수목 전정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에서는 이번에 신품종으로 등록된 3개 품종은 우리나라 뚝은 감 품종 육성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큰 성과라며, 올해에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여 2015년부터는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 054)531-0591

여름바다

동해

파도소리, 파란소리 시원한 동해바다 속으로...

아름답게 펼쳐진 동해바다와 반짝이는 백사장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출렁이는 파도소리에 여름은 시원한 추억이 됩니다.

포항

구룡포해수욕장

한국 지도에서도 호랑이 꼬리 부근에 위치한
구룡포는 영일만 해돋이와 바다낚시가 일품이다.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16
☎ 054-270-8282

월포해수욕장

2009년 국토해양부 지정 우수 해수욕장인 월포는 솔밭과
자연유원지가 있어 해수욕과 삼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92-115
☎ 054-232-4001

칠포해수욕장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기로 소문난 칠포
거대한 놀이 시설인 마린파크가 있어 물놀이객에게 안성맞춤이다.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97-33
☎ 054-270-8282

북부해수욕장

최대 높이 120m까지 물을 뿜는 형형색색의
분수대가 장관을 이룬다.

☘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
☎ 054-270-8282

관성솔밭해변(주 관성해수욕장)

경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프장과 놀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경주시 양남면 수렴 2리
☎ 054-779-6320

경주

나리고문모래해변(주 나리고문해수욕장)

온천탕, 해수탕이 유명하며,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등의
신나는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

☘ 경주시 감포읍 나정 1리
☎ 054-779-6320

봉길대왕암해변(주 봉길해수욕장)

검은 조약돌이 펼쳐진 봉길대왕암해변은
대왕암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

☘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 054-779-6320

오류고마라해변(주 오류해수욕장)

모래가 부드러워 모래찜질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 소나무 숲이 이어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다.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 054-779-6320

여름이 폭발하는 White Sound!! 그 진정한 시원함
온 여름을 잠기게 하는 경북의 코발트색 바다를 만나세요~

영덕



대진해수욕장

이문열 소설 '젊은 날의 초상'의 배경이
된 이곳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 054-730-7721

고래불해수욕장

국토해양부 지정 4회 연속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고래불은 고래가 노니는 갯벌을 뜻한다.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 054-732-2001



장사해수욕장

백사장이 길다고 해서 장사(長沙)라 통하며
맑고 깨끗한 바닷물을 간직하고 있다.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 054-730-7301

하저리해수욕장

강구면 해안도로 변에 위치한 백사장 길이 약 1km 정도의 해수욕장으로 갯바위가
많아 낚시꾼들이 사시사철 많이 찾는 곳이다. 주변에 간이 횃집이 많이 들어서 있다.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 010-6556-8894

울진

기성망양해수욕장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이 수평선과 거의
일직선 상에 있어 눈앞에서 떠오르는
해맞이를 경험할 수 있다.

울진군 기성면 망양 1길
☎ 054-789-6861



주산해수욕장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푸르른
소나무 숲이 조화를 이룬다.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 054-789-6861



망양정해수욕장

관동팔경의 하나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07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선정됐다.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로
☎ 054-789-6902



나곡해수욕장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여 물놀이 하기가 좋아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다. 바위섬 경치가
아름다우며 야영과 민박이 가능하고, 인근에 나곡1리 어촌체험마을이 있다.

울진군 북면 나실길 20-19
☎ 054-789-6861



Summer Sea



87년 세월 쌓인 양조장 건물은 ‘근대산업유산’

막걸리는 공장장이 만들고 배달은 사장님이...

경북 영양에는 국내에 현존하는 막걸리 양조장 중 가장 오래된 곳이 있다. 영양군청과 읍사무소 사이에 자리한 ‘영양탁주합동’이라는 이름의 영양막걸리 양조장이 그 곳이다.

건물 안에 들어서면 잘 익은 술 향기가 먼저 사람을 맞는다. 1926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시작한 청주 양조장으로 부터 막걸리 양조장으로 이어져 87년 세월동안 그 자리에서 술을 담그고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올해 경상북도에서 도내 30년 이상 기업 중 품목별 장수기업을 ‘향토뿌리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이곳 ‘영양탁주’도 3대째 가업을 계승한 국내 최고(最古) 양조장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영양탁주합동관리회’ 간판을 달고 서있는 사각콘크리트 정문기둥의 당당함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얀 회칠을 한 벽이 거뭇거뭇 때가 타고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지긴 했지만 ‘양조장’ 건물은 아직도 튼튼해 보인다. 사무실 한 쪽에 놓인 낡은 책상, 삐걱대는 미닫이문까지 옛 것이다.

정문 옆에는 양조장을 소개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양조장 현관문 위에 ‘전화6’이라는 작은 나무 푯말이 붙어있다. 일제시절 영양에 전화가 10대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양조장에 여섯 번째 전화기가 설치됐다는 뜻이다. 군청이 1번, 경찰서가 2번 등 관공서가 1번부터 5번까지 차지했고, 민간에서는 이 양조장이 첫 번째로 영양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현관문을 바라보니 ‘서열 6위’를 공식인정 받았던 시절을 증언이라도 하듯 ‘전화 6’이라 쓰인 푯말이 진짜 있다.

현재 ‘영양탁주합동’ 대표인 권시목(65) 사장은 “영양에서는 중학교까지 다니고 서울로 가서 대학 나오고 살다가 다시 영양으로 온지가 10년 남짓인데, 지금은 막걸리를 찾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며 막걸리 양조장이 잘 나가던 시절은 옛날이야기라고 손사래를 친다.



▲ 영양막걸리양조장-작업실
◀ 영양막걸리양조장-병입포장

전화6 푯말이 붙은 영양막걸리양조장-현관 ▼



권시목 사장(좌)과 권부웅 공장장 ▲
영양막걸리양조장 ▶



“영양이 고추의 고장이라 하는데 밭일이 많은 봄부터 가을 농번기까지는 막걸리 판매가 잘 되요. 목마를 때는 막걸리가 최고거든요. 사이다나 맥주는 마시고 돌아서면 목마르지만 막걸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조그마한 시골 양조장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다.

요즘은 술 종류가 다양해져 막걸리를 찾는 사람이 적고, 큰 업체에서 만든 막걸리가 시골까지 들어오기 때문. 그래서 ‘틈새전략’으로 1병 750원 하는 막걸리를 영양군내 모든 가정과 논밭으로 직접 배달,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영양은 예부터 막걸리 생산량이 많아 2000년까지 6개의 양조장이 있었다. 이제 영양에 남은 술도가는 이곳 하나다.

양조장서 제일 중요한 곳은 누룩을 띄우고 술을 익히는 발효실, ‘뽕글뽕글’ 막걸리가 익어가고 있다. 막걸리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을 대변하듯 발효실은 양조장에서 가장 넓은 큰 방 두 개다. 발효실은 벽과 천장이 두 겹에다 폭이 1m쯤 된다. 벽 사이에 왕겨를 채워 건물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단다.

사무실과 발효실을 바쁘게 오가는 이가 있다. 권부웅(73) 공장장이다. 이곳에서 막걸리 만드는 법을 배워 44년을 근무하고 있다. 양조장에서 제일 중요한 술 만드는 일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허드렛일(?)인 사무나 배달일은 사장님이 챙긴다.

‘영양생(生)막걸리’란 이름으로 팔리는 이 양조장 막걸리는 쌀과 밀가루를 절반씩 섞는다. 그런데 병에는 원료를 ‘밀 100%’로 표기하고 있다. “인쇄 바꾸는데 돈이 들어서”란다.

누르스름한 빛깔의 영양막걸리는 단맛이 그리 세지 않고 톡 쏘는 탄산이 별로 없고 묽은 편이다. 도회지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해 단맛을 강조한 대기업 막걸리와는 달리 영양막걸리는 주 소비자가 60~70대로 옛 막걸리에 대한 향수를 가졌기 때문이란단다.

영양막걸리는 양조장에서는 1병(750ml) 750원에 살 수 있다. 영양군 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병 900원에 살 수도 있다.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20ℓ들이 사각형 통에 담아 보내준다. 택배비 따로 부담.(영양탁주 054-682-1501)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어렵지 않아요!

농업인이 현장에서 만든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경상북도는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를 육성, 이들이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땀 흘리며 얻은 귀중한 지식을 모은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었다.

친환경 유기농업 매뉴얼들은 기존 관행재배 농업인들도 힘들어 손을 든 사과 유기재배를 3년에 걸쳐 완성한 포항시 광우순 농가, 40여 년간 사과 재배에 혼신을 기울여 사과박사로 잘 알려진 청송의 손계용 농가 등 배, 포도, 고추, 딸기, 인삼 등 6개 품목 9개 농가에서 3년간에 걸쳐 이루어낸 힘든 작업과정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사업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농가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도내 11개 농가, 9개 품목에 대해 각종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담당 지도사들과 함께 생육에서 병해충 관리, 수확지도 및 친환경 농자재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연구하는 생생한 현장체험으로 노하우를 쌓았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유기농업 매뉴얼로 집대성되었다.

이러한 현장 매뉴얼은 친환경 농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초보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유기재배에 도전하려는 기존 농업인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과수분야 친환경인증비율 확대를 통해 선진과수 시스템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경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친환경 유기농업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053)950-2402

경북의 魂 지금 여기 되살아나다!

한 권으로 읽는 경북정체성 책자 발간

경상북도는 경북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책 한 권으로 읽는 경북정체성, '경북의 혼, 지금여기 되살아나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경북의 4가지 정신적 축인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축약해, 경북의 정체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이 각각의 개별적인 정신문화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북만의 위대한 정신유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경북정체성 확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앞으로 '경상북도의 정신이 곧 대한민국의 정신'이라는 자부심을 경북도민 스스로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책 서두에는 '경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부에서는 경북이 수구꼴통이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또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경상도 사람들을 폄하 하거나 비꼬아서 낮춰 부를 때 '보리문디'라는 말도 자주 들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경북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따져 볼 때 오해이자 잘못된 편견임을 지적하고, 경북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선덕여왕, 장계향 등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중심에 섰던 경북여성의 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23개 시·군의 대표 정신을 부록으로 정리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경북도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비전과 목표,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담았다.

▶ 담당부서 : 미래전략기획단 053)950-3864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149개 기관 참여, 다문화가족 314가구와 결연·후원

경상북도는 5월 6일 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 채원봉 경북농협본부부장, 박동관 DGB금융지주 부사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공공기관 65개소,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 등 금융기관 29개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기업체 34개소, 포항의료원 등 병원 5개소, 경북바이오연구원 등 유관기관 16개소 등 총 149개 기관이 참여, 이들과 결연한 다문화가족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3개국 314가구이다.



한·일 합작투자 (주)PNDT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공장 기공

720억 규모 합작투자로 올 11월부터 자동차엔진부품 양산

경상북도와 영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22일 김관용 도지사,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주)PNDT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채신동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서 한·일 합작투자사인 (주)PNDT 자동차 부품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주)PNDT의 영천공장 착공은 지난해 9월 MOU 체결 이후 7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공사 중인 일본 (주)다이셀에 이어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두 번째로 착공에 들어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앞으로 자동차 부품관련 우수 외국인기업들의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000조 분의 1초, 잠겼던 시간의 문이 열린다!

세계 최첨단 과학 연구시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기공식



경상북도는 5월 9일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용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박승호 포항시장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기공식’을 가졌다.

선형가속기인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원형가속기인 제3세대 방사광(태양의 1억 배 밝기)보다 100억 배 밝고 1,000조 분의 1초 단위 시간대 물질의 변화와 살아있는 세포의 동적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이 가능한 장치로 2014년 준공되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 보유국이 된다.

2015 제7차 세계물포럼 킥오프회의 개최

지구촌 물 문제 해결 위해 전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경상북도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회의인 세계물포럼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회의(Kick-Off Meeting)를 김관용 도지사, 이정무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 벤 브라가 세계물위원회 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학계, 관련기업 등 전 세계 물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EXCO에서 개최했다.

킥오프회의란 2015 제7차 세계물포럼의 첫 번째 준비회의로 2012년 3월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보고와 제7차 세계물포럼의 대주제(overarching theme), 논의체계/framework, 로드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장이다.

“농어업인 행복시대, 앞장서 열겠습니다!”

경북농어업 리더의 산실, 경북농민사관학교 총동창회 출범

경북농민사관학교는 5월 20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 의장,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기관 관계관, 총동창회 및 재학생 대표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 행복시대, 앞장서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총동창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총동창회 출범에 앞서 군위군 효령면 소재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전경에서는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고 미래 경북농어업·농어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300만 도민의 비전과 희망을 담아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쓴 글씨로 표지석을 제작·설치하여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지금은 여성시대! 열정적인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13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경상북도는 5월 22일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 의장, 남유진 구미시장, 백옥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박진우 도새마을회장, 김향자 경운대 총장, 새마을부녀지도자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새마을여인상 대상에 하순선(청도군 이서면 새마을부녀회장)씨 등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꾸기에 앞장서고 사회공동체 만들기에 공이 큰 유공자 6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은고비 키타우 주한 케냐대사, 김관용 도지사 예방

새마을 통한 우호친선 및 교류협력 방안 협의



김관용 도지사는 5월 28일 은고비 키타우 주한 케냐대사의 예방을 받고, 경북형 새마을사업의 케냐 현지화와 경상북도와 케냐의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은고비 키타우 주한 케냐 대사는 아프리카 빈곤퇴치를 위한 경북도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하며, 케냐의 차세대 인재들이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경북도의 새마을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이에 김관용 도지사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아프리카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국-스위스 수교 50주년 기념

경북 봉화 분천역-스위스 체르마트역 자매결연

경상북도는 5월 23일 봉화 분천역에서 한국-스위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봉화군 소천면 소재 분천역과 스위스 체르마트역(Zermatt Station)을 양국 철도여행의 대표 기차역으로 선정,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행사는 요르그 알로이스 레딩 주한 스위스대사와 정창영 코레일 사장, 경상북도, 봉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 내륙순환열차 O-train과 백두대간협곡열차 V-train 탑승, 협약서 서명 및 교환, 분천역 스위스풍 데코레이션 제막식, 카셰어링 체험, 스위스 노르딕워킹 하이킹, 캠핑 등 1박2일 일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포스코 고순도 페로실리콘(FeSi) 공장 준공식

고용 창출은 물론 철강 핵심신소재 수입대체효과도 기대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포스코 고순도 페로실리콘(FeSi) 공장 준공식을 5월 28일 포항 오천광명산업단지에서 김관용 도지사, 정준양 포스코 회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준식 포스코 사장, 권오준 포스코 기술총괄사장, 김진일 포스코 컴텍사장, 윤용철 포스코엠텍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은 포항 오천광명산업단지 내에 총 1,400억 원을 투자하여 10만㎡ 부지에 건축면적 2만2천500㎡ 규모로 연간 35,000톤의 고순도 페로실리콘(FeSi)을 생산할 예정이다. 고순도 FeSi는 철과 규소(실리콘)의 합금으로 만든 전기강판의 핵심첨가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공장 준공을 계기로 연간 9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세계관광기구(UNWTO), 새마을 세계관광 선포식

지속가능한 관광과 빈곤퇴치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 제시

경상북도는 6월 3일 경상북도새마을역사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탈레브 리파이(Mr. Taleb Rifai)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도영심 UNWTO ST-EP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광기구와 함께 하는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새마을 세계관광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는 세계관광기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이념과 한국을 넘어 세계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새마을운동 성공사례에 대한 관광을 통해 새마을 이념을 확산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개소

경북도, 항공전자산업 아시아 허브로 첫 걸음



경상북도는 6월 7일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정희수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자동차항공과장, 보잉 한국방위사업부문 조셉송 대표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경상북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영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항공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항공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수립 추진, 항공전자 기업 유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미스터 새마을, 계부자 모잠비크 대통령과 '새마을 환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사업 통한 협력방안 논의

김관용 도지사는 6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르만도 계부자 모잠비크 대통령과 만나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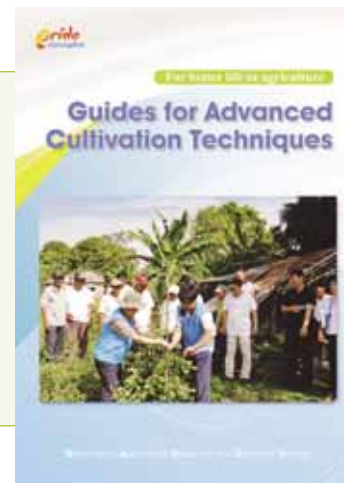
계부자 모잠비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방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도 김관용 도지사와의 단독면담을 요청, 모잠비크의 이웃나라인 탄자니아에서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 경북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 '대상' 싹쓸이

경상북도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3월말 실적평가에서 집행률 63.61%(2조 1,752억 원)로 도부 전국 대상을 수상하고, 시·군부에서는 안동시(70.26%)와 성주군(66.49%)이 대상을 영천시, 경산시, 예천군, 의성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포항시, 상주시, 청송군, 고령군이 우수 기관으로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영문판 영농교재 발간, 경북농업기술 세계에 알린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해외농업 기술 교류와 기술지원 확대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기술수준에 맞는 영문판 맞춤형 농업기술교재를 편찬,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아프리카 새마을 시범마을의 농업기술 현지지도에 사용한다. 교재는 벼,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망고 등 6종 작물에 대해 사진 위주로 아시아 현지 농업인들이 쉽게 배우고 재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경북 농식품사업단 3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경상북도는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09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추진 실적 점검평가에서 경북의 감고부가가치화사업단, 청정약용작물사업단 2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2011년 이후 3년 연속 국비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 안동사과,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최고영예 대상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3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안동사과(안동시)가 대통령상을, 금상에 의성마늘(의성군)이 국무총리상, 은상에 빛깔찬(영양고추유통공사)·죽장연(영일인터내셔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칠곡군 1위

경상북도는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김천에서 개최, 시·대항 25개, 군·대항 15개 종목에서 선수 8,682명, 임원 2,674명 등 총 11,356명의 선수단이 지역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시부 1위 포항시, 2위 김천시, 3위 구미시, 군부 1위 칠곡군, 2위 의성군, 3위 예천군이 차지했다. 2014년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문경에서 개최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실시

경상북도는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도내 11,315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98. 4. 11)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및 공공시설이 해당되며,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 경북도, 농식품 해외매장 1호 일본점 개점

경상북도는 지난 5월 24일 일본 동경 신주쿠 K-plus한류백화점 내에 '경북 농식품 상설 전시·판매장' 1호점을 개점, 경북도에서 출자·설립한 농식품 수출 전문기업인 경북통상(주)에 위탁,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이번 상설 전시판매장 개점을 계기로 경북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경북도,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대 최대 성과

경상북도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구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5, 은메달 35, 동메달 40개를 획득, 역대 대회참가 최대의 성과를 내어 학교체육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5월 31일 포항시 동빈나루에서 김관용 도지사, 한혜련 도의회 부의장, 박승호 포항시장, 해양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산·해로 열리는 희망경북 바다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 해양수산발전 유공자를 시상하고, 다문화가족 초청 노래자랑 등 다양한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 2013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경상북도는 도내 25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하여 경영실적이 우수한 13개 센터를 '2013 우수창업보육센터'로 선정했다. 최우수센터에 대구가톨릭대창업보육센터, 우수센터는 각 권역별로 포항공대(동부권), 영진전문대(서부권), 경일대(남부권), 안동대(북부권)이며, 장려센터는 동국대(경주캠퍼스), 금오공대, 구미시, 대구대, 영남대, 문경대, 안동과학대, 경북도립대창업보육센터가 수상했다.

■ 제15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개최

경상북도는 5월 31일 구미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박정희 체육관 등 구미 시내 6개 경기장에서 ‘다함께! 군세계! 끝까지!’ 라는 슬로건 아래 17만 경북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대제전인 ‘제15회 경상북도 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을 개최, 육상, 줄넘기, 족구 등 10개 종목에 23개 시·군 선수 1,160명과 시민 등 총 6,000여 명이 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대축제를 펼쳤다.



■ 충의의 고장 청송에서 제3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북도는 6월 1일 청송군 향일의병기념공원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재원 국회의원, 한혜련 도의회 부의장, 한동수 청송군수, 도내 보훈기관단체장, (사)의병정신선양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렸다.

■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영양에서 거행

경상북도는 6월 6일 영양 호국공원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 의장, 강석호 국회의원, 권영택 영양군수, 도내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유족, 참전유공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또한 도내 각 지역 충혼탑에서도 시·군 단위 현충일 추념식을 일제히 거행했다.

■ 경북도, 제12회 대한민국 소비문화대상 수상

경상북도는 6월 1일 서울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에서 소비자권익보호부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12회 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은 (사)한국소비문화학회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 경북도, 농촌개발사업 2년 연속 전국 1등 쾌거

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앙평가’에서 도내 20개 지구가 우수 등급인 ‘S 및 A등급’을 받아 전국 우수등급 최다를 기록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의 우수지구에는 2014년 신규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예산증액, 해외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으로 2014년도 국비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지게 되었다.

■ 경상북도수목원, 한국특산 희귀 식물종 발견

경상북도수목원 보존지구 내에서 희귀식물 노랑미치광이풀 군락지가 경북 최초, 우리나라 최대인 600㎡ 규모로 발견되었다. 노랑미치광이풀(Scopolia lutescens Y.N Lee)은 1993년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기록된 여러해살이풀, 뿌리줄기에 독성분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잘못 먹으면 미친다고 해서 이름을 얻었다. 한방에서 이 독을 진통, 진경제 등으로 쓴다.



■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한마음 축제 성황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2013년 정기총회 및 한마음 축제 행사가 6월 8일 국회 운동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와 재경 향우회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새마을운동 세계화, 도청이전 등 도정현황을 소개하고 재경 시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독도홍보관, 실라리안 전시판매장,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 경북도, 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43억원 지원

경상북도는 수확기 농가로부터 매입한 벼의 건조, 저장, 가공 등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포항 흥해농협, 남포항농협, 서안동농협, 상주 함창농협, 봉화농협 등 5개소에 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2013 지자체-기업 투자 상담회 참가, 수도권이전기업 MOU 체결



경상북도는 6월 1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박보생 김천시장, 이성숙 바이오라이트(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라이트(주) 본사 이전 및 추가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주)이 주관하는 ‘2013 지자체-기업 투자 상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2013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물소리 야외공연장에서 ‘2013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을 펼친다. 상설공연은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 문화명소 육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후원하고, (사)한국국악협회 경산지부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도내 전문 공연단체, 문화재 보유자, 명인명창 및 신진 예술단체가 출연할 예정이다.

〈제262회 임시회 결산〉



■ ■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 도정현장 확인 실시 ■ ■

보궐선거 당선 배한철 의원, 의원당선 선서도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 5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경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배한철 의원의 의원당선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고,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 ■ 경북도의회 ↔ 영남대학교 상호협력 협약체결

경북도의회와 영남대학교는 3월 26일 14:00시에 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송필각 의장 등 의회 의장단과 노석균 영남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법률문화 발전과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도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의회 각부서 현장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봉사활동 개발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 송필각 의장, 일선 공직자 대상 특강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4월 23일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자과정과 중견간부양성과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명의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북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특강을 실시,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에 맞게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 경북·대구 상생발전 위한 제2차 간담회 개최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4월 24일 청송군청에서 경북도의회원과 대구시의원이 함께 하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 문제와 경북도·대구시 공무원 공동교육 실시를 정칙과제로 채택하여 공동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북·대구의 지역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해 향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 ■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경상북도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 소속 김상목씨와 금정호씨 2명을 고문변호사로 재위촉, 5월 2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존 김 섭, 배동천 변호사 임기는 내년 9월 30일까지이다.

■ 건설소방위, 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 운영실태 점검 대형건설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5월 3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찾아 우록교의 차량통행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화학·방사능사고시 초기대응 및 전담부서인 '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또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군위지역 동명~부계간 및 문경 농업~산양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의성 안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김천혁신도시건설 현장 등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 농수산위, 고령 축산물 공판장 및 덕곡 저수지 현장확인 독도 고유전복 치패 방류행사도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5월 3일 고령 축산물 공판장을 찾아 경매·출하과정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당부하고, 또 올 연말까지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덕곡 저수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독도 해역 바다목장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촌계장, 주민과 함께 4~

5cm 크기의 치패(어린전복) 2만마리 방류 행사를 독도해역에서 가졌다.

■ 문화환경위,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현지확인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5월 6일과 7일 이틀간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찾아 창조기업 유치 및 육성, 융합콘텐츠 개발 등의 문화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안동댐 인근 안동시 성곡동 일원에 50만평 규모로 2003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10여 년간 조성한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현장을 돌아보고 운영실태 등을 살폈다.



■ 교육위원회, 기숙형 공립 중학교 선진모델 견학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5월 6일 교육부가 기숙형 공립중학교의 성공모델로 제시한 충북 속리산중학교를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과정과 교육효과, 지역주민의 정서, 학생 만족도 등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이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2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5월 6일 도의원 3명, 재무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의 검사활동을 펼쳤다.

■ 기획경제위, 동북아사무국 외국공무원과 대화의 시간 실라리안 업체 등 중소기업 생산현장 현지방문도

기획경제위원회는 5월 9일 박진현 위원장과 포항출신 장세현, 김희수, 김말분 위원이 포항 소재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파견된 회원단체 외국공무원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성주, 칠곡, 예천에 소재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과 경북도 중점 육성지원 중소기업 프라이드 업체를 방문, 중소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과 저금리 자금 및 홍보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경북도의회, 클린 의회로 거듭난다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을 통해 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조속한 시기에 의원행동강령과 예산낭비사례 근절을

〈제263회 정례회 결산〉



■ 경북도 조직개편 등 각종 조례안 심사 ■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및 도정질문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정례회를 개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2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도정질문을 진행하였으며,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펼쳤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6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 ‘일본 극우망동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5월 16일 전체 의원일동 명의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헌법 96조의 개정의도·731부대 등 극우망동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최근 일본 각료 및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아베 총리의 과거 침략사 부정 등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회귀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임업발전연구회, 산림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 의원)는 장세현 정책연구위원장과 도의원, 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1일 ‘국가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국가차원의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과 산림경관 인증제 등 도입에 따른 지역임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건의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5월 27일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 박영교 대전시의회의장, 이준우 충남도 의회의장 등과 함께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 신도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 에너지절약 실천 결의 다져



경상북도의회는 6월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최 이후 도의회 본관 현관에서 송필각 의장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른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에너지절약 실천’을 결의했다.

■ 기획경제위, 실라리안 업체대표와 간담회 개최 독도경비대원 위문 및 울릉도 개발현장 현지확인도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경북 대표 브랜드인 ‘실라리안’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라리안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어동에 소재한 실라리안 판매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울릉도·독도를 방문, 독도경비대원을 위문하고, 울릉도 녹색섬 개발현장과 울릉군민 지원현황을 파악했다.



■ 교육위, ‘독도사랑’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실천 결의



교육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거점 ‘기숙형 공립중학교 추진실태 점검’과 일본의 역사망언에 따른 규탄과 ‘독도사랑, 역사 바로 세우기’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남양초와 울릉중, 울릉고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땅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 건설소방위, 재해위험 우려지역 등 취약시설 직접 점검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4일 칠곡지역 왜관~가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및 경산 남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재해위험 우려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추진현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 도정질문 요지



■ 장영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도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등과 견주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 도민의 14.8%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하여 특화된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대한 도지사의 입장, 늘어가는 도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 홍광중 의원(교육위원회)

4대강의 흐름이 느려져 위기에 처한 한국 토종어류 및 멸종위기종과 희귀어종 보존·복원 대책,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대책, 도내 특성화고 47개교 중 농업 관련 특성화고는 3곳에 불과한데 우수한 농업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도청이전신도시 조경사업을 토종 자생 식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 김영기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경북을 물산업 핵심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 물포럼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도록 할 대책, 향후 물 부족 대비책, 도내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보수와 점검 대책, 도내 저수지 수질관리 관련 예산을 적정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농업용수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 향후 도내 상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대책,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대책, 경북도의 가정폭력 근절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울진과 월성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개발세를 투자하여 경북도가 직접 원전 부품연구원과 시험연구기관을 설립하는데 대한 견해, 원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북도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는데 대한 견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실크로드 체험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연어 방류 사업 실적이 강원도에 비해 미미한 이유 등을 질문했다.



■ 박권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도 산하기관·단체가 설치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나, 도 산하기관·단체의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 산하기관장 임용시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에 대한 견해, 경북도 농어촌 가공산업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대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연구용역)를 통해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6월 28일부터 고등어, 갈치, 명태도 원산지 표시해야

경상북도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9개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기준도 강화되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cm×29cm 이상 크기로 제작한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한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수산진흥과 053)950-2070

경북 중소·영세 수출기업 수출환변동보험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엔저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서도 지역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대금 회수불가, 환율하락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함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동안 최대 5만불까지 미결제된 수출대금을 보장한다. 이 사업의 수출보험료는 전액 경북도에서 지원하고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가입신청서 한 장으로 바로 보험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도내 수출중소기업들이 만기에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선적 전 수출이행자금 신용보증을 통해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한 수출중소기업으로, 50개 기업을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신용불량업체, 보험료연체업체, 중소기업Plus+보험 기 이용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관련 문의는 경북도 국제비즈니스과(053-950-3041)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053-252-4932)로 하고, 신청접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FAX 053-256-2684)로 신청하면 된다.

▶ 담당부서 : 국제비즈니스과 053)950-3041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 이사할 때 주소 이전하세요!

주소 이전 해야 위급상황 시 119의 신속한 구조 이뤄져

‘070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이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하여야 위급한 상황에서 119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모씨는 남편이 사고우려가 있다며 집에서 119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곳은 신고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아닌 이사 전에 살았던 포항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이처럼 이사를 하고 나서 인터넷전화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아니라 이사 전에 살았던 주소지 관할 119로 신고가 된다.

이런 경우 119에서는 출동을 위해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접수받은 내용을 실제 신고자가 있는 지역의 119로 전달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동지연의 원인이 된다.

또한, 같은 시·군내로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사 전에 살던 곳의 119안전센터가 출동하게 되어 이 또한 출동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의 통신사업자에게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대표적인 인터넷전화 사업자별 변경신청 전화번호는 KT 100번, SK브로드밴드 106번, LGU+ 1644-7000번 등이다.

정보격차 해소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품 가격 80% 지원, 나머지 20% 본인 부담

경상북도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7월 12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맡겨진 정보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시군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으로 총 78종의 제품이다.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20% 중 절반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과 자세한 사업안내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나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원(전국 1588-2678)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8월 9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실 053)950-2176

경북도,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금리 대폭 인하

4.1%에서 3.6%로 0.5%p 인하, 6월 1일부터 시행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대출금리를 6월 1일부터 연 4.1%에서 3.6%로 0.5%p 인하해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는 창업이나 사업장의 증·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증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8년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저리로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자금으로, 지난해 대출금리 4.3%로 융자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4.1%로 낮춰 융자해오다가 5개월 만에 다시 3.6%로 큰 폭으로 인하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금리인하는 향후 자금 이용계획에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융자추진 되어 대출받은 132개 기업들도 수혜를 받게 된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지난 5월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엔저에 따른 수출부진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창업과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전략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별 세부지원 기준과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및 각 접수기관을 통해 문의·접수하면 된다.

〈2013년도 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내용〉

자금명	구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내용	접수기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시설	8억원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4.1% 대출금리 (6. 1부터 3.6% 적용)	(재)경북경제진흥원 (구미, 054-470-8550)
	운전	3억원 (연매출액의 25% 또는 시설 자금신청액의 30%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벤처기업 육성자금	시설	2억원(우대 3억원) (기술평가금액 범위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재)경북경제진흥원 (구미, 054-470-8550)
	운전	1억원(우대 2억원) (기술평가금액 범위내)			
운전자금		3억원(우대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1년 거치 약정상환	시중 대출금리에서 3~5% 차감된 금리	시·군 기업지원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천만원(우대 5천만원)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약정금리에서 2% 차감된 금리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 054-474-7100)

▶ 담당부서 : 기업노사지원과 053)950-3543



작은소참진드기 매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심한 고열 및 소화기 증상이며 중증화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2011~12년 2년간 총 2,047건(129례 사망, 치명률 약 6%)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3년 1월 최초 발견 이후 현재 15건(8명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3.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주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의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에 따르면 실제 SFTS 감염률은 0.5% 이하로 나타나서, 진드기 100마리 기준으로 1마리 이하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린다고 해도 당시 바이러스의 양이라든가,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확률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SFTS에 걸린다고 괜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38~40도를 넘는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입니다. 그 외에 두통, 근육통, 림프절종창(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지의 림프절이 크게 부어오르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더 진행이 되면 신경계 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이나 체내의 여러장기의 손상이 발생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5. 진드기는 실내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진드기와 다른니까?

SFTS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집먼지진드기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 서식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이나 산의 풀숲에 서식합니다.

6.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5~8월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당기거나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핀셋 등을 이용하여 진드기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심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8. 인간 이외의 동물도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진드기는 야외에서 인간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동물을 흡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SFTS 발생 지역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발병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수칙

- 피부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 옷 착용
- 작업 시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토시와 장화 착용
- 풀밭 위에 직접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
-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즉시 입었던 옷은 털고 세탁한 후 세탁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 될 수 있음



올 여름 무더위, 안동에서 수상레포츠로 날린다

래프팅, 배스낚시, 수상레포츠, 카누 · 조정 등 수상스포츠 천국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각종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으며 물의 도시, 수상스포츠 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넓은 면적과 맑은 물을 자랑하는 안동호반이 동양최고의 스포츠 피싱장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안동시 와룡면과 예안면을 잇는 주진교에서는 매일 평균 한차례 배스낚시 대회가 열리고, 국제대회도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된다. (※ 대회문의 : 한국스포츠피싱협회 <http://sportfishing.co.kr>)

또 안동에서는 낙동강의 절경과 함께하는 병산~하회 코스와 청량산 협곡에서 비롯되는 급류를 즐길 수 있는 가송두 코스에서 래프팅을 경험할 수 있다.

하회~병산 코스는 낙동강 12경 중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부용경(하회마을, 병산서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강물흐름이 급하지 않고 깊지도 않아 습지와 강바닥 모래알까지 흰히 들여다보여 해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부터 학생하계수련장, 기업체 연수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 하회래프팅 <http://www.enadree.com> ☎ 054-842-1119)

가송 코스는 영남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지는 청량산 줄기가 마을을 에워싸고 그 아래 형성된 거대한 층층절벽이 가송협, 외병대, 내병대, 독산, 벽력암으로 불리는 등 독특한 절벽을 이루고 있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래프팅과 농촌체험장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곳은 병산~하회코스보다 급류지역으로 스릴을 즐길 수 있다.

(※ 래프팅 업체 : ◆가송래프팅 <http://www.gasong.net> ☎ 054-852-2719, ◆대자연래프팅 ☎ 054-852-3222, ◆도산래프팅 ☎ 054-856-7793, ◆월드레저래프팅 <http://www.world-leisure.net> ☎ 054-853-1733)

안동 · 임하호에서는 모타보트, 수상스키,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 푸른 물을 가르며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사업장 2곳과 수상레저 시험장 1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안동댐 우안에 위치한 안동수상레저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장이 마련돼 있어 수상레저를 위한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임하호도 안동호 못지않은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수상레포츠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 수상레저 업체 : ◆안동수상레저 <http://www.adboat.co.kr> ☎ 054-821-2020,

◆안동호수상레저 <http://www.andongski.com> ☎ 054-854-0090,

◆아쿠아수상레저 ☎ 054-821-8909)

한편 지난 4월 와룡면 산야리(구짓골)에 수상스포츠 카누훈련센터가 들어서 본격 가동되고 있다. 총 2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카누훈련센터는 계류장 역할을 할 630㎡ 규모의 부선과 장비보관창고 및 체력단련실(2층, 812㎡),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천 치산계곡 & 치산관광지 캠핑장 인기폭발!

팔공산 폭포 중 가장 낙차 크고 낙수 풍부한 치산폭포

영천시 신녕면 치산계곡 일대는 자연이 거의 훼손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이 유지되고 있다. 팔공산 정상과 북쪽 시루봉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폭포와 계곡을 이루며,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치산폭포는 팔공산에 산재해 있는 폭포 중 가장 낙차가 크고 낙수가 풍부하며, 한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다. 또한 주변의 다양한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은 치산폭포의 매력을 한층 더한다. 천년고찰 수도사, 진불암, 동봉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 역시 치산계곡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



최근 치산관광지내 캐라반 14동, 캐빈하우스 4동, 관리사 1동, 산책로, 소공연장, 족구장,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구비한 '치산관광지 캠핑장 (펜션형 캐라반)'을 개장했다. 이색적인 캐라반에서의 캠핑을 즐기려는 캠핑족들의 폭발적인 관심속에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http://chisan.yc.go.kr/>)

또한 치산관광지 캠핑장 아래 자리한 치산산촌생태마을은 '돌담모과마을'로 불릴 만큼 잘 보존된 돌담길과 집집마다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는 모과나무, 마을 상류의 다랭이 논이 이채로운 곳으로 한가로이 마을의 돌담길을 거닐다보면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치산산촌생태마을에 들어서면 산촌마을쉼터(펜션), 산나물 재배장, 잘 가꿔진 마을안 돌담길이 방문객을 반긴다.





강과 산, 사람이 함께하는 명품 관광도시 상주

제6회 상주사랑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13. 11. 1 ~ 11. 8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응 모 내 용

- 낙동강과 속리산 등 강과 산, 들을 주제로 한 관광 상주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제 슬로시티 인증도시 등 상주시의 이미지를 담은 사진
- 지역 문화유적지,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을 주제로 하여 상주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진
- 지역 농 · 특산물 및 상주시민들의 역동적인 생활상과 풍요로운 귀농 · 귀촌 마을의 전원 생활상을 담은 사진

▶ 응모자격 및 작품규격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작품규격 : 11 × 14 인치 컬러 작품(1,000만 화소 이상)

▶ 출 품 료

- 1인당 20,000원(출품수 6점 이내/인)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
(우)742-706 상주시 왕산로 82-14(남성동 167-4)
- 문의처 : 상주지부 지부장 ☎ 016-534-1445
홍보간사 ☎ 010-8870-3456

▶ 출 품 요 령

- 작품 이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장소, 작가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별지에 기재
- 촬영정보의 부정확한 기재는 심사에 불이익 있음
(가급적 2013년 1월 이후 촬영작 출품 권장)

▶ 접 수 기 간

- 2013. 11. 1 ~ 11. 8
-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심사일시 및 발표

- 심사일시 : 2013년 11월 중
- 심사발표 : 한국사진작가협회 및 상주시 홈페이지 게재

▶ 시상 및 사진작품 전시회(예정)

- 기 간 : 2013. 12. 14 ~ 12. 17 (시상식 : 12. 14(토) 11: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지하)전시실

▶ 시 상 내 용

- 금상 1점 상주시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은상 2점 상주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동상 3점 상주문화원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전체 출품작 수의 30% 범위내)

▶ 기 타 사 항

- 가. 입상 · 입선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
- 나. 입상 · 입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상주시에 귀속됨
- 다. 초상권 등의 민 · 형사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라. 컴퓨터 합성사진과 그래픽 가미, 타 지역 장소 사진 등 이라고 판명될 경우 심사 제외(입상자는 입상취소 및 시상금 반환조치)
- 마. 입선 · 입상작은 발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출력용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권은 취소 함
(장변 3,500pixels 이상의 JPEG 파일로 제출, 필름인 경우 스캔 받은 이미지로서 디지털 파일과 동일하게 제출)
- 바. 동일작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사형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처리됨
- 사. 낙선작은 작품집과 함께 반송함
- 아. 상기 공모내용 중 심사일시, 시상 및 전시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이들에게 꿈을, 가족에게 사랑을, 인류에게 평화로!”

연극

꿈을 만나라

가족

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2013. 7. 26(금) ~ 8. 6(화)

www.gitf.co.kr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대 · 소공연장 및 공연장 일대
- 주 최 : 김천시
- 주 관 :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 영남일보
- 후 원 : 경상북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경북연극협회, 김천교육지원청, 김천예총, (사)예술공동체 삼산이수, 김천연극협회, KOREA 코레일 김천구미역
- 문 의 :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사무국 054)435-8279, 439-8245

| 주최 | 상주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 | 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